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벨리  <6>

제2부-국내 자동차 생산 1위 울산을 가다
 1 자동차산업 현황

“세계 최고 생산능력을 가진 자동차 제조공장은 유럽도 일본도 아닌 한국 울산시에 있다” 지난해 중국 7학년(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울산이 ‘세계최고 자동차 도시’로 소개됐다. ‘자동차 도시-울산’이라는 소단원에 울산의 위치, 경제성장 과정, 자동차 제조 공정, 자동차 생산 현황 등을 3쪽에 걸쳐 실고 있다. 아울러 울산이 자동차 원자재·부품의 생산 공급, 완성차 생산, 판매, 애프터서비스 등 업체가 모여 있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다.

수출 둔화·채산성 악화 미래 먹거리 찾기 안간힘

▲1970년대 이후 국내 최대의 자동차 도시로 성장해온 울산은 울산항과 산업단지를 비롯한 뛰어난 입지와 연구소 등 지원체계를 갖춰 세계 4대 자동차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자부하고 있다. 울산항에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차량. <현대차 제공>

◇울산 자동차산업 광주의 3배 규모 자랑=울산은 세계 4대 자동차 기술혁신 클러스터임을 자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국내 최대의 자동차도시로 성장했고 현재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우버스 등 270여개 업체에 4만 6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총생산의 17.4%, 수출의 21.8%, 고용의 9.6%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단일공장 세계 최대(500만㎡)를 자랑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2014년 152만대를 생산하고 116만대를 수출했다. 비공식이지만 2014년까지 총 3335만 대를 생산하고 1999만 대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1999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총 수출 1000만 대의 2배 규모인 2000만 대 수출을 울산에서 이미 지난해 연초에 달성했다는 의미이다. 광주의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연간 62만대를 생산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성과는 국내 차 산업의 시동을 켜 현대차가 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기술혁신과 글로벌 마케팅을 벌인 결과다. 또한 울산시가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설립, 매곡산단 등 자동차 부품소재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 오토밸리로 건설 등 광역시 승격 직후부터 추진한 오토밸리 조성사업이 자동차 산업혁신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동남권 경제 이골 대규모 산업단지 구축=울산 자동차산업 현황은 지금도 진행형인 ‘울산 오토밸리사업’ 즉 울산 자동차 전문 생산단지 구축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가 주도한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울산 북구 염포 양정동에서부터 효문공단, 그리고 농소·매곡 지방 산업 단지를 거쳐 경주 인근까지 포함하고, 현대차 공장과 부품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 개발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울산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집적, 기술혁신과 능

민간 차원 오토밸리시티 복합산단 추진

친환경차 R&D 거점 그린카기술센터 준공

수소차·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개발 박차

력혁신, 모듈화와 적기 생산체계를 갖춘 동남권 자동차 산업 벨리를 완성해 가고 있다.

울산에는 북구 오토밸리로를 따라 중산산업단지와 자동차부품소재단지, 모듈화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최근에는 현재 추진중인 모바일테크밸리 일만산단단지(30만7220㎡) 외에 현대정공(주) 등 17개 업체들이 천곡동 산 45번지 일원 50만782㎡에 공동시행 형태의 민간 산업단지인 ‘오토밸리시티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울산 달천·천곡 일대에만 총 100만㎡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돼 자동차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울산시는 2006년 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 개원해 2012년 협업혁신관(공장동)과 SLED시험장 완공을 거쳐 거듭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가 매년 기업지원 폭을 넓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의 거점 역할을 할 그린카기술센터까지 준공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돌입하면서 생산 인프라나 R&D(연구 개발) 역량강화 인력양성 측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요충지로 인정받고 있다.

◇위험감 속 미래자동차산업 차분히 준비=하지만 잘나가던 울산의 자동차산업도 해외 현지생산이 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

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화와 일본의 ‘엔저공세’로 생산과 수출둔화는 물론, 채산성까지 악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 역시 생산설비과 관련 모든 것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구기능마저 ‘탈(脫)울산’이 계속되고 있어 울산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도시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취재하기위해 울산시를 찾은 기자에게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 가능성에 대해 되레 묻는 등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자동차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주축으로 하는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선도 및 제품 개발, 시장 개척을 적극적 지원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위기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또 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 운전시대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친환경, 고안전, 고편의 자동차 개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부생수소(공장가동 중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차와 3D프린팅 산업이 울산의 전략산업으로 선정,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동력을 확보했다며 반겼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 선정으로 광주는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에,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소재쪽에 특화범위가 정해지면서 수소산업 활성화에 있어 울산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